

95. 9. 28

남녀고용평등법 실효 의문

8년동안 고발 10건·약식기소 1건뿐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돼 사법 처리를 받은 기업이 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7일 정무장관(제2)실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뒤 8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 고발·기소된 경우는 겨우 10건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년·퇴직·해고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고발된 사례는 89년 1건, 90년 2건, 91년 1건, 93년 1건, 94년 2건, 95년 2건 등이었으나 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4년 모 집·채용상의 차별로 고발당한 43개 업체 중 36개 업체가 약식기소당한 것이 고작이다. 김미경 기자

재해주민 보험료 경감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홍수·가뭄·적조 피해지역 주민 6천여가구에 대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료 등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여현호 기자

민방위본부장 김홍래씨

정부는 27일 내무부 민방위본부장에 김홍래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임명했다.